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오송 이전”은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9.3.(화) 매일신문, 영남일보, 서울경제 등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수출사업본부를 경주 본사에서 세종시 인근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한수원의 본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경주시로 이전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한수원 본사의 일부를 여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황창호 (044-203-5325)